

지산터널 교통사고 '전국 상위권'

최근 5년간 17건·54명 다쳐 광주 터널내 사고 30% 증가 터널 내 앞지르기 등 자제하고 감시카메라 설치·구간단속 필요

광주시 동구 '지산터널'이 최근5년(2016~2020년)간 전국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 다발구역 상위권에 기록됐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터널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터널내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안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 교통사고 발생 상위 30곳 중에 지산터널이 17건의 교통사고로 54명이 다치면서 16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2%(2016년 7354건→2020년 7718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광주지역 터널내 교통사고는 2016년 8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30.2% 증가했

다. 전남지역도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9504건에서 9816건으로 0.8%증가한 데 반해, 터널내 교통사고는 31건에서 37건으로 2.3% 늘었다.

전국적으로 터널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27명에서 2020년 40명으로 48.1% 증가했지만 광주지역은 지난 2016년 한 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지역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명(2016년)→2명(2017년)→1명(2018년)→0명(2019년)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2020년 3명으로 늘었다.

터널내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3.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안전운행이 더욱 중요하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터널은 총 2742곳로 경기·강원 등 8개 광역도에 86.5%가 설치돼 있다. 광주는 29곳, 전남은 294곳의 터널이 설치돼 있다.

전국 최근 5년간 터널내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88.5%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특성상 서로 맞부딪치는 충돌사고보다 뒤

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많았다. 터널 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는 전체 교통사고가 10~11월에 많이 발생한 반면, 터널 교통사고는 외부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발생 시간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의 70.6%가 주간(10~19시)에 발생했는데, 이중 오후 2시~4시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도로교통공단은 ▲터널내 전조등 켜기▲시아방해하는 선글라스 벗기▲앞차와 적절한 안전거리 유지 ▲터널내 앞지르기(추월) 절대금지 ▲주행 속도10~20%감속 ▲사고 또는 정체시 비상등 점등 등 터널내 예방수칙을 제안했다.

고령우 도로교통공단 교통S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터널 진출입 시에는 반드시 감속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노면요철포장 등 도로 환경적 시설 개선과 함께 구간단속장비 설치·운영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사고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꿀벌 살리자" 전남도 전국 첫 긴급예비비 투입

180억 투입 등 본격 지원...가축재해보험 특약사항 추가 건의도

전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꿀벌이 사라져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꿀벌 '30통(군) 이상' 사육농가 1831호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대상의 70%인 1280농가에서 10만통(군)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군과 함께 긴급 예비비로 마련한 꿀벌 구입자금 140억원을 비롯해 꿀벌 사육 기자재 20억원, 방역약품 20억원 등 총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꿀벌 구입 지원을 위해 편성한 긴급 예비비는 꿀벌피해가 농업재해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기 힘든 꿀벌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남도는 꿀벌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

축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또한 피해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꿀벌 사육 기자재 지원을 위한 '꿀벌산업 육성사업'에 꿀벌 구입비도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해마다 발생하는 꿀벌 질병인 노재마병, 응애류감염증, 낭충봉아부패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약품과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긴급 소독약품도 공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상기온으로 벌꿀 생산량이 감소한 꿀벌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 발생에 준하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꿀벌산업 조기 안정화를 위해 농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꿀벌을 구입해달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정보 '한눈에'

광주 북구 '스마트 키오스크' 도입

광주시 북구가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에 IT기술을 접목해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7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국비 공모사업인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스마트 안내체계 조성사업'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스마트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과 관람객이 머무는 관광명소인 광주문화예술회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3곳에 각 기관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4월 중 정식 서비스가 시

작된다. 또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키오스크 옆에 종이로 제작된 통합안내책자도 비치한다.

특히 이번 사업 중 하나로 평소 지역민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서로 일원(문화예술회관 후문부터 중외공원 주차장)에 스마트 쉼터도 조성했다. 주민 설문을 거쳐 '중외 예술로(Yeah! Slow)'라고 이름 지어진 이곳은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북구는 그동안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나 공연 정보를 확인해야했던 주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민주광장 '빛의 분수대' 햇불처럼 솟아오르네

광주 5·18 민주광장에 조성중인 '빛의 분수대'가 지난 26일 오후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 빛의 분수대는 5·18의 정체성을 담은 햇불을 이미지화해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계승하기 위한 작품으로 오는 31일 공식 개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스포츠 게이머 양성 과정' 개강 광주이스포츠교육원 4월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아시아이스포츠교육플랫폼지원사업'으로 개설돼 호남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주이스포츠교육원은 오는 4월 15일까지 이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이스포츠 전문종목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이스포츠 전문종목 게이머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월 14일 시작된 이번 과정은 게임 유저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물론 신규종목 추가 수요를 반영해 오버워치 종목을 신설, 총 125명의 참가자가 전문 코치의 지도하에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뉘 하루에 2시간씩 개인 게이밍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중이다.

광주이스포츠교육원 프로그램은 '아시아이스포츠산업교육플랫폼' 지원을 받아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수료 후 출석률에 따라 수료증도 수여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이스포츠교육원 공식 홈페이지(http://geec.honam.ac.kr)와 전화(062-380-8561-3)로 확인 가능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구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 이달 31일까지 투표해 주세요

광주시 동구는 '2022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구민 온라인 투표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올해의 책' 사업은 성인·청소년·어린이·유아 부문으로 나눠 선정하고 1차는 전문가와 구민 후보로서 추천, 2차 '올해의 책' 도서선정단 심사, 3차 구민 선호도 투표를 거쳐 최종 10권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독서전문가, 주민, 사서 등을 대상으로 '올해의 책' 후보도서 총 221권을 추천받아 도서선정단 평가회의를 통해 부문별 5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했다.

부문별 후보도서 중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1권씩 선택하면 되고 참여방법은 동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두드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동구는 최종도서가 선정된 후 구민들의 독서 기회 확대를 위한 구민 도서지원 및 지역책방과 독서전문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5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행복도시 광양

광양시